

세계 임마누엘 교회

담임목사: 임 성 환 (510-282-7785) Lim1230@gmail.com
408 W. MacArthur Blvd. Oakland, CA 94609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 (눅 10:38~42)

설교: 임 성 환 목사 (2011-10-16)

38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39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41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시간 최고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시애틀 전도 신학원에 다녀 왔습니다. 오는 길에 공항에서 서점을 둘러 봤습니다. 대부분의 잡지의 표지가 Steve Jobs 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발명의 천재로 에디슨에 비유 하고 있었습니다. 놀랄 만한 발명품 들을 많이 만들어 냈습니다. 이 분은 컴퓨터를 무척 사랑하고 생을 걸었습니다. 한가지에 생을 걸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룰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한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기 때문 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체장암으로 7~8년을 고생하였지만 아픈 중에도 대단한 집중력으로 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던 일도 제쳐놓고 병 고치는데 집중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머리가 있어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가능성,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집중해서 내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을 10%만 써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합니까? 보통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편하고 즐기면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생애를 보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랍계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네 태어나서 Foster Home 에서 성장 했습니다. 학교 공부도 많이 한 것이 아닙니다. 체장암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아버지와와 관계도 풀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한가지에만 집중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 90:10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정성,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주일 입니다. 주님만을 위한 날입니다. 할 일이 많더라도 한 시간만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저도 힘들도 어려울 때 주님 사랑을 고백하면 힘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 주님의 은혜를 받은 가정입니다.

1.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2.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가정입니다.

3. 주님을 사랑한 가정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지간 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가정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 입니다. 창세기 3장 아래에서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과 가문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저주가 사라지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 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니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문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비밀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 중 은혜 입니다. 예수님 오시자 마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입니다. 50년 만에 한번 오는 희년의 축복이 임했다고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올해 첫 주 메시지가 희년의 축복 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에 50년 만에 오는 희년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믿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정 옵니다. 말씀을 보면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받은 가정임은 분명합니다. “눅 7:37~39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칭찬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을 만나서 새 인생을 시작 한 것입니다. 은혜에 감동해서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정말 주님께 은혜 받으면 인생이 새로워 집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큰 일이 일어났는데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요11:3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얼마나 사랑하면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 나옵니다. 나사로나 아버지나 혹은 마리아/마리아의 남편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문둥병이 치유 받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를 사랑하는 가정이 되었고 주님이 자주 들러서 쉬고 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집에 들렀을 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어 주님께 부었습니다. 이것은 일년 동안 일을 해야 살수 있는 가격 이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크고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하면서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도 헌신하고 사랑하면 더 큰 증거, 더 헌신 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게 됩니다. 헌신을 하게 되면 더 큰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축복이 임합니다.

II.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은 다릅니다.

1. 관심이 다릅니다. 2.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다릅니다.
3. 주님을 향한 헌신이 다릅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가정이지만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입니다. 그들의 하는 모습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관심이 달랐습니다. 길을 가다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고 목도 말랐을 것입니다. “39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41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관심이 달랐습니다. 당연히 손님들이 왔으니 대접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셨을 때는 누가 더 귀하겠습니까? 우리도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실 것입니다. 여선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라는 말이 나오지만 마르다는 한번도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마리아는 복음의 비밀, 말씀의 비밀을 깨닫기 원했습니다. 전도 할 때 말씀을 던져보면 복음을 받을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전도자, 사명자 인지 말씀을 던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 하십시오. 말씀 속에 은혜, 생명, 하나님의 계획,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육신적으로 발달해 있으므로 자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엄청난 것입니다. 복음은 비밀입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부르면서 성령충만 받고, 흑암이 꺾이고 모든 것이 이루어 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진 이 비밀을 예전에 왕들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어떤 분이 이 말씀을 묵상 하면서 불치병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 하면 헌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III. 주님은 말씀 중심의 신앙을 원하십니다.

1.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의 필수입니다.
3. 주님은 말씀 붙잡은 자를 통하여 주님 자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주님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듣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부모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에 필요한 밥을 매일 먹습니다. 내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입니다. “신 8:3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치유되지 않으면 세상 유혹에 빠지

게 됩니다. “히 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왜 자꾸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답답합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시켜 달라고 기도 하십시오.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형통케 한다고 하셨습니다. “수 1: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요즘 청년들이 직장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없는 직장도 만들어 내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올인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개인에게 다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찾아 보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50년 동안 해 오고 있지만 내가 20대, 30대에 이 비밀을 알았다면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로 들어가 보십시오.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능력, 내 수준, 내 배경에 관계 없이 이루어 집니다.

결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중일 묵상하나이다 (시119:97) 이런 신앙이 꼭 필요 합니다. 세상 문제 때문에 밤새도록 걱정하고 염려한 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나도 모르게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깊이 집중하면 다른 생각이 사라지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지혜가 생깁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비밀이 내 삶의 현장에 일어 납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을 못 누리고 살면 얼마나 억울 합니까? 이 비밀을 깨달으시고 하루에 적어도 세 번은 기도 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삼 오늘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형통하고 평탄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다 주신 축복을 이제부터 누리셔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현장을 놓고 기도 하십시오. “요삼 1: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을 사랑하면 영혼이 치유 받고 만사가 형통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